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8월 8일 월요일 (음 7월 6일)

제161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폭염이 빚어낸 꽃물결

불이면 청보리의 싱그러움 푸른 물결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고창 공음면 학원농장의 여름. 이곳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백일홍 등이 일제히 만개해 꽃물결을 이루고 있다. 학원농장 일대 7천여평에는 무더위를 딛고 피어난 고운 꽃들이 햇살을 머리에 이고 형형색색 피어나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 내년 예산 확보 노력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네요'

요구사업 상당수가 신규·심의 진행도 지지부진

전북도가 2017년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연일 기획재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SOC축소·신규사업 역제라는 방침에 전북도의 국가예산 반영 요구사업 상당수가 신규인데다 심의 진행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도내 주요사업에 대한 기재부 심의결과, 전북도는 신규사업 총 353건 7,552억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반영된 금액은 150건 1,726건(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먼저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 사업(2017년 요구액 60억원)의 경우 새만

금 MP상 민간 투자지역으로 국비지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투자를 이끌고 새만금 내부개발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과 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2017년 요구액 20억원)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상용차 94%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도 상용차 부품업체의 전장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대구 규제 프리존(자율주행)사업과 중복된다며 부정

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 규제프리존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대상이지만 전북은 상용차 중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2017년 요구액 53억원)도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2017년 완료예정인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등 타 광역개발계획 조성 완료 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은 문체부에서 직접 용역을 통해 수립한 계획이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삼례 삼백마을 조성 등 전북 8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반영

이 필요한 상황이다.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2017년 요구액 70억원)도 불투명하다.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유치로 정신수양과 수련공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전당 조성이 시급하다. 현재 국기원과 대한 태권도협회에서 국비확보를 전제조건으로 50억원 기부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 역시 당초 조성 재원을 기부금으로 건립하겠다고 계획해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 순기가 지난해 보다 빨라 대응하기가 어렵지만 신규 사업에 대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의 대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제능과 열정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전주매일이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창의적 사고와 진취적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초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격 조건
취재기자(경력·수습)	본사 0명	일기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접수기간** 2016년 8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4층
문의전화: 063-288-9700(본사 총무팀)
e메일: jjmaeil1@hanmail.net

전주매일

낮 최고기온 35도... 사람도, 가축도 폭염에 '헉헉' 도내 가마솥더위 '맹위'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사람도 가축도 허덕이는 모습이다. 최근 전북지역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 및 가축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오전 4시를 기해 전북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후로 무려 16일 간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도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부안, 고창, 순창, 임실 등 12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진안과 장수에는 폭염주의보가 각각 내려진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보름 넘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도내에서 온열질환자 67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환자들은 주로 무더운 날씨에 농사일을 하거나 보행 중 어지럼증과 발열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 뿐 아니라 가축들도 더위에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가축대부분이 축사에서 밀집돼 사육되다 보니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를 견디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도는 이날 현재까지 폭염으로 92만2,23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종류별로는 닭이 88만4,815마리, 오리 1만5,866마리, 돼지 155,7마리, 젓소 등 기타 2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농가를 돌며 피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축사 주변에 물을 뿌리는 등 가축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뉴시스

익산시 인사 명단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더 큰 열정으로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창의적이며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부안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군의회